

종합

광주시민 보건·복지비 178억 날아갔다

한나라 예산안 날치기 관련 예산 누락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등 26만명 피해

민노 광정숙·시의원들 주장

지난해 연말 한나라당의 예산 단독 처리과정에서 보건·복지 관련 예산이 대거 누락되면서 광주시민 26만명이 각종 보건·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178억원의 예산도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중노동당 광정숙 의원(비례)과 강은미·전주연 광주시의원은 5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1년도 정부 예산안 날치기로 인해 광주시민 26만명에게 돌아갈 보건복지예산 178억원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광 의원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애초 서민 복지예산 5462억 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의 예산안 날치기 과정에서 무려 3600억원이 삭감됐으며, 증액분은 10%에 불과한 550억원에 그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증액하기로 합의한 예산안 중 삭감된 주요 복지예산은 영유아 필수예방 접종사업 확대 338억원 등 총 11개 예산 3588억원에 달했다. 이처럼 예산이 누락되면서 광주시의 피해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 의원은 “한나라당의 예산안 날치기로 광주시민들이 누려야 할 보건복지 관련 예산 178억4580만원도 물거품이 됐다”라고 밝혔다.

주요 삭감내용은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자체보조 24억원 ▲A형간

■ 국회 보건복지위 증액 예산안 반영시 광주시 지원 추정액

사업명	추정금액(단위:천원)	산출근거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지자체 보조	2,400,000	24만건×10,000
A형간염 예방접종 백신지원	427,000	1~2세 영유아 13,576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1,000,000	산모 1,881명×540,000
보육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수당	11,476,000	만3~5세 1,058명×100,000~200,000
방학 중 결식아동 한시적 국비지원	684,000	2,533명×3,000×90일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10,000	고등학생 7명×1,369,000
구강건강관리(노인 의치보철)	248,000	209명×1,190,000
도시지역보건지소확충	1,600,000	1개 도시보건지소
합계	17,845,800	-

(자료: 민주노동당)

영 예방접종 백신지원 4억27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10억원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114억7600만원 ▲방학 중 결식아동 한시적 국비지원 6억8400만원, 장애인자녀 학비지원 1000만원 ▲구강건강관리(노인 의치보철) 2억4880만원 ▲도시지역 보건지소 확충 16억원 등이다. 국회 상임위에서 증액하기로 한 예산이 모두 반영됐을 경우 광주시민 26만 명이 이 같은 각종 보건·복지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었지만, 예산안 날치기 불과로 물거품이 된 셈이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52.2%)에도 미치지 못하는 광주 동구(15.5%)·서구(22.1%)·남구(15.7%)·북구(15.8%)·광산구(19.3%) 중 일부 자치구는 올해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예산도 8개월분만 편성하고 4개월 분은 아예 반영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준영 전남도지사가 5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세계적 항공산업 전문기업인 미국 씨버리(Seabury)그룹 마일스 필러(Myles Goeller) 아시아·태평양지사 총괄사장과 무안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한 뒤 각서를 펼쳐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제임스 김 (주)AAT 회장, 마일스 필러 씨버리그룹 아시아·태평양지사 총괄사장, 박준영 도지사, 서삼석 무안군수, 홍상은 한중미래도시개발(주) 부사장. (전남도 제공)

美 세계적 항공전문기업 무안에 투자

전남도-씨버리그룹 MOU ... 무안기업도시 한중산단 기업·자본 유치

전남도는 5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박준영 전남지사와 서삼석 무안군수, 마일스 필러(Myles Goeller) 씨버리그룹 아시아·태평양지사 총괄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무안기업도시 투자유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에 따라 세계적 항공산업 전문기업인 씨버리(Seabury)그룹은 무안기업도시의 한중

산단에 항공산업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사업전략을 수립하고 국제 전략적 협조자와 투자자들을 선정해 기업과 자본을 유치하는 컨설팅 용역을 수행한다.

전남도와 무안군은 양해각서 체결 사업자가 무안기업도시와 한중 미래도시를 세계적인 항공복합클러스터로 조성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항공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노하위를 갖고 있는 씨버리그룹과 항공기정비관련 기술력 보유 기업인 ㈜AAT, 무안기업도시 사업자인 한중미래도시개발(주)이 전략적 제휴를 맺음으로써 항공기정비센터(MRO) 사업과 무안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도 올해 지방직 428명 뽑는다

장애인·저소득 구분 모집

전남도가 올해 지방공무원 428명을 신규채용한다.

구체적인 채용부문은 일반직 358명을 비롯한 연구직 20명, 농촌지도자 14명, 기능직 16명과 별정직 13명,

계약직 7명 등이다. 일반직은 7급 28명(행정 20명·수의 8명), 8급 4명(간호)을 채용한다. 9급은 326명(행정 172명·사회복지 13명·농업 24명·축산 6명·복지 6명·디자인 3명·해양수산 10명·보건 33명·토목 30명·건축 9명·지적 2명·도

시계획 1명·환경 3명·의료기술 1명·선박 3명·사서 1명·기계 2명·세무 3명·전기 1명·전산 3명)을 각각 선발한다.

또 기록·학예 연구사 등 연구직 20명과 농촌지도자 14명, 이외 기능직 16명과 별정직 13명, 계약직 7명도 채

용한다.

장애인 구분 모집 인원은 총 선발 인원의 4.4%인 19명(도 8명, 시·군 11명)이며, 저소득층 구분모집 인원은 4명(행정)이다.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은 오는 5월 14일(일반직 9급·연구직)과 10월 8일(일반직 7급) 치러지며 이의 부분은 전남도가 자체 세부 채용시험 계획을 수립해 이달 말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YS, 50억 상당 전재산 사회 환원

자택·거제도 땅 등

김영삼 전 대통령은 5일 서울 상도동 자택과 거제도 땅 등 50억원 상당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해 사회 환원을 위한 공증 절차까지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신년 인사차 상도동 자택을 방문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를 만나 “거제에 땅이 조금 있었는데 재산을 전부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집도 다 내놓았고 자식에게 일체 물려주는 것도 없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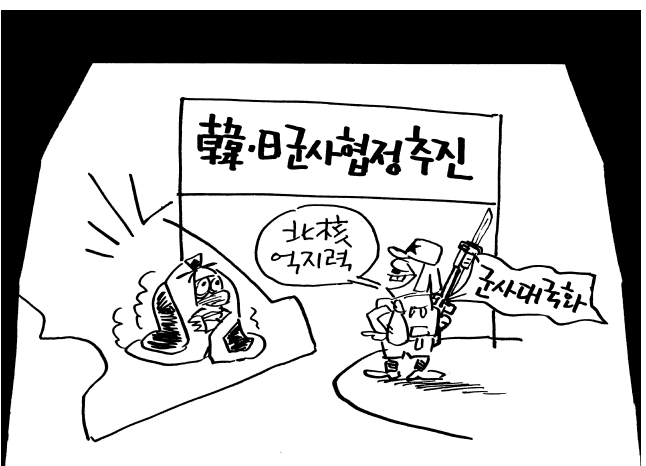


김 전 대통령은 15억원 상당의 상도동 자택과 전산을 비롯한 거제도 땅은 사단법인 ‘김영삼 민주센터’에, 거제도 생가는 거제시에 기부하기로 했으며 거제도 생가 인근 뽕나무 밭에 세워진 신명교회는 장로교 교단에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김 전 대통령의 선친이 운영해오던 마산의 말치어장과 관련 땅도 내놓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빛日만평

- 김중두



한반도 전쟁은 어찌고...

무안기업도시 인근 79.9km²

토지거래허가구역서 풀렸다

무안기업도시 인근 땅(79.9km²)이 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려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게 됐다.

전남도는 5일 무안기업도시 인근 무안군 무안읍·정계면·현경면·방운면·운남면 일대 79.9km²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군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다.

전남도는 애초 무안기업도시의 국내단지(15.25km²)와 한·중 국제산업단지(17.7km²) 개발을 위해 무안군의 의견을 수렴, 지난 2005년 국내단지 및 한·중 국제산업단지 예정 부지와 인근 땅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었다.

전남도는 그러나 국내단지의 경우 지난해 10월 경기 침체로 인한 투자분위기 위축으로 전담법인 설립을 위한 법정자본금(1241억)을 확보하지

못하고 산단 개발계획을 기간(5년)내 승인받지 못하면서 조성 계획 자체가 백지화된 만큼 주민의 재산권 제약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해제했다.

이번 조치로 기업도시 내 한·중 국제산업단지 예정지(17.7km²)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게 됐다.

일각에서는 한·중 국제산업단지 예정지가 지난해 9월 기업도시특별법에 따른 최소 개발면적(5km²) 수준으로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축소된 부지만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대상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한·중 국제산업단지 예정지도 줄어들었지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해제 지역을 특정하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헌법재판관 박한철씨 내정

이명박 대통령은 5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박한철(58) 전 서울동부지검장을 내정했다.

박 후보자는 인천 출생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23회로 법조계에 입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대검찰청 공안부장, 대구지검장 등을 거친 정통법조인이다.

청와대는 박 후보자의 인선 배경에 대해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특수, 형사, 공안, 기획 분야를 두루 거쳤고, 1996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해 헌법 이론 등 법률지식이 해박하며, 평소 철저한 자기관리로 2007년 삼심비자금 사건 특별수사감찰본부장으로 임명되는 등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었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티켓몽키에서는
**매일 밤 11시,
광주의 모든 곳이
반값이 됩니다!**

50%~90%

<http://www.t-mong.co.kr>

광주의 대표 소셜커머스
티켓몽키에서 하루에 한가지!
광주의 모든것들을 **반값**에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입해서 혜택 누리세요.

티켓몽키 입점 문의 070-7581-7766

티켓몽키에서는 광주의 모든 곳을 50%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NAVER 티켓몽키 를 검색해보세요.

2009년~2010년
서울대 12명 합격

중·고 국·영·수 전문학원

양영,대성의 서울대반 강사진이 직접 수업합니다.
그룹반은 별도로 상담하세요!!



일곡동 국민학원

☎(062) 574-0101

봉선동 국민영재학원
☎(062) 672-0483

since 1985. CH중국어문화원 | 광주분원

정통침구학 수강생 모집

공개강좌 및 설명회

광주20기) 1월 21일(금) 14:00-17:00

광주분원 위치: 지하철 화정역 4번출구 추신회관 뒷편

※ CH중국어문화원은 침구학 및 대체의학을 교육하고 연구하는 곳으로 의료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침구학 기본과정

- 자격: 침구학에 관심있는 분 · 월회비: 9만원(교재포함)
- 기간: 매주1회 3시간/ 총 16주(4개월)과정
- 주요과목: 전통침구학/침뜸기초/부항/경혈경락/비만침법/미용침법/중국어침/한방기초 등
- 가정생활 진단(자가)상식을 위한 세미나입니다.

연수과정

- 소정의 연수과정 수료후 침구계(3년),중의계(5년),결업증과 중국 침구사, 국가자격증 취득가능(해외사용가능)
- 의료 관련 업종의 소득증대효과, WTO개방 대비
- 세계 각국 해외 이민시 한방병원 설립 및 취업

CH중국어문화원
www.wchina.co.kr

전국대표번호 : 1544-5359

광주분원 : 062)236-3516

2011년 시험대비

공인중개사 시험

개강 1월 10일 (월) 상담접수중!

주간반·야간반·주말반

전남고시에서 수강하시면

1. 누구나 합격할 수 있다(주·야수강가능)
2. 연회원 수강료 특별할인
3. 교재 무료 제공(12권 180,000원)
4. 동영상제공
5. 독서실, 사물함 무료이용

국비지원 수강가능!

전남고시학원

전남여고 건너편 ☎222-5105